

# 억울한 시민 눈물 닦는 광산구 적극 행정 주목

### 전국 최초 사회적 약자 위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분양잔금 소송 A아파트 주민 첫 대상...남구도 조례 제정 관심 확산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리 구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해 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익소송 비용지원'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민간단체 주도로 이뤄진 공익소송 지원을 제도화한 전국 첫 사례다.

법률, 세무,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광산구의 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광산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가 직접 주민이 신청하거나 자체 발굴한 안전에 대해 공익소송으로 가능한 지를 심의하고, 이 결과에 따라 패소 비용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나 광산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후 지원한 공익소송은 3건이다.

첫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이 중 납부한 분양금 잔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나선 A아파트 단지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에 입주금 중 10%

를 시공사에 납부했다가 시공사 부도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통지를 받고 공사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재차 납부하는 피해를 겪었다.

광산구는 보증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없어 주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책임이 존재한다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주민의 대응을 '공익소송'으로 판단해 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또 B 주차타워상가 분양과 관련해 계약서 내용 변경 등 허위 및 과대광고를 문제 삼아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 나선 8명의 주민도 지원을 받았다. 거대 건설사의 과장광고를 통한 분양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공익성을 인정해 조치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주민의 법적 대응도 이번 공익소송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했다. C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말소 소송을 제기한 D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당사자들이다.

D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의무임대 기간인 5년이 지났음에도 분양전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마저 변경되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소송에 나섰다.

이처럼 광산구의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는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함을 호



광산구 직원들이 '공익소송 비용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소하는 주민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송 비용 지원을 받은 한 주민은 "변호사 선임료, 패소 비용 등이 무서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선뜻 법적 대응에 나서기 어려웠는데, 광산구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털 수 있었다"며 "이런 좋은 제도는 더 많이 알려지고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공익소송 지원 대상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광산구의 선제적 권리보호 정책을 배우려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에선 남구가 광산구 모델을 참고해 공익소송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익소송 비용지원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시민의 권리구제를 넘어 향후 발생할 공익저해를 예방하고,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고도화 및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알쓸습잡' 제작 음식점 식품위생 길라잡이

광주 광산구가 신규 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알쓸습잡(알아두면 쓸모있는 식품위생 잡학사전)'을 제작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식품위생교육으로 신규 영업자 법령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맞춤형 식품위생 정보 안내서다.

안내서에는 위생교육, 건강진단결과서 등 매년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업종별 영업자 주요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식중독 예방수칙 등이 포함됐다.

광산구는 신규 음식점 영업신고증 교부 시 안내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추후 e-북으로도 제작, 광산구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안내서 내용을 최신화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알쓸습잡" 안내서 첫 출발하는 음식점 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가을 밤송이처럼 친구를...' 광산행복돋움판 새단장

광산구는 "가을시즌을 맞아 광산행복돋움판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7월1일부터 가을편 문안을 공모했으며, 427명이 참여해 605건을 접수했다.

광산구는 김완수씨의 '가시 돋은 채 마음 담은 줄 알았는데 너도 가을 밤송이처럼 친구를 품었구나.'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광산구는 3편의 가작도 함께 선정하고, 광산구청사와 광주송정역, 야호센터, 장덕도서관, 수완호수공원, 쌍암공원 등 6개소 행복돋움판을 새로운 문안으로 교체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CEO·한빛여성 라이온스클럽,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쌀 기부



광주CEO라이온스클럽(회장 고병욱)과 한빛여성 라이온스클럽(회장 김혜영)이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쌀 100포(500만원 상당)를 이주 민중합치원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전쟁의 화마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의 정을 함께 나누는 데 보탬이 되도록 회원들이 십시

일반 정성을 모은 것이다. 고병욱 회장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클럽 회원들의 따뜻한 연대의 마음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민선8기 공약 체계적 이행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광주 광산구는 "최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구청장 주재로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담당 부서장의 공약 실천계획 보고에 이어 추진 과정 중 예상 문제점, 예산확보 대책 등을 논의하여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한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화지점